

뉴스홈 | 최신기사

'이제는 본선이다'...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 도전

송고시간 | 2022-02-02 00:56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 3월 29일 최종예선 마무리...4월 1일 본선 조 추첨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웃음꽃 핀 축구대표팀

(두바이=연합뉴스) 김민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된 벤투호는 일찌감치 2022 카타르 월드컵 무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랍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월드컵인 카타르 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를 비롯한 5개 도시,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월드컵이 11월에 개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S SHOP
특급 혜택 받으세요! 5,000 10,000

월드컵은 통상적으로 6월에 열리지만, 이 시기 카타르의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11월로 개최 시기가 변경됐다.

파울투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일(한국시간) 시리아전에서 2-0 승리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6승 2무(승점 20), 무패행진을 이어가며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A조 2위를 확보해 본선 진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대표팀은 시리아전 후 해산한 뒤 다음달 최종예선 9·10차전을 치르기 위해 다시 모인다.

요약 댓글 공유 가 구독

1010회
모토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장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coway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김진수의 선제골!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김진수가 선제골을 넣고 벤치로 뛰어가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3월 24일 조 1위를 다툰 이란과의 9차전 홈 경기에 이어 같은 달 2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최종전 원정경기로 최종예선을 일정을 마무리한다.

2차 예선도 무패(5승 1무)로 통과했던 우리나라는 이란, UAE전 결과에 따라 1990년 이탈리아 대회(9승 2무),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7승 7무)에 이어 세 번째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 무패'도 기록할 수 있다.

본선 진출을 확정된 만큼 벤투 감독은 이란, UAE전에서 새로운 얼굴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다양한 전술 실험도 할 수 있게 됐다.

월드컵 기간 태극전사들이 사용할 카타르 내 베이스캠프 결정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벤투 감독은 지난해 11월 도하에서 이라크와 최종예선 A조 6차전을 치르고 나서 선수들을 소속팀으로 돌려보낸 뒤 일부 코치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과 카타르에 남아 베이스캠프 답사를 하며 시설 등을 둘러봤다.

카타르행이 결정 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캠프를 차지하려면 계약을 늦출 이유가 없다.



선제골 넣고 환호하는 김진수와 선수들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김진수가 선제골을 넣고 벤치로 뛰어가 환호하고 있다. 2022.2.2 yaloya@yna.co.kr



달신출 발판 본중이 마늘, 꽃게죽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4월 1일에는 도하에서 월드컵 본선 주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본선 성적을 가능해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

다만, 아시아-남미, 북중미-오세아니아로 대진이 결정된 대륙 간 플레이오프(PO)가 오는 6월 13~14일 중 중립지역에서 단판 승부로 열릴 예정이라 조 추첨은 본선 참가 32개국 중 30개국만 확정된 가운데 치러진다.

현재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한 15개국이 카타르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유럽 예선에서 각조 1위를 차지한 10개국(세르비아,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잉글랜드, 독일)과 남미 예선 1, 2위를 달리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카타르행을 확정 지었다.



박수 치는 벤투 감독

(두바이=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8차전 대한민국과 시리아의 경기. 벤투 감독이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2.2.1 yatoya@yna.co.kr

아시아에서는 이란과 우리나라가 카타르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본선 조별리그 상대국이 결정되면 월드컵 준비에는 더욱 속도가 붙게 된다.

아시아 무대와는 다른 수준의 강호들과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상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고 평가전도 치러야 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연간 일정을 보면 5월 30일~6월 14일 최대 4경기, 9월 19~27일 최대 2경기까지 A매치를 치를 수 있다.

대표팀은 10월 31일부터 대회 개막 전 마지막 소집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FIFA 월드컵 본선의 경우 대회 개막 3주 전 월요일부터 대표팀을 소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2시즌 K리그는 역대 가장 이른 2월 19일 개막한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지'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26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0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40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4

뭐하고 놀까? #홍→



원정 월드컵 사상 첫 16강에 올랐던 2010년 남아공 대회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3차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1차 목표는 조별리그를 통과해 16강에 오르는 것이다.

2018년 러시아 대회까지 한국은 10번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두 번만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안방에서 치른 2002 한일 월드컵 때 사상 처음 16강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까지 썼다.

이후 2010년 남아공 대회 때 두 번째이자 원정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16강에 오른 바 있다.

두 대회를 빼고는 모두 조별리그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본선 첫 승리를 거둔 것도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폴란드와 1차전(2-0 승)에서였을 정도로 한국축구에 월드컵 본선은 호락호락한 무대는 아니었다.

그 어느 해보다 순조롭게 아시아 예선을 통과한 벤투호는 이제 카타르에서 12년 만의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한다.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1954 스위스 월드컵 (김용식 감독)	2패 (조별리그 탈락)	
 1986 멕시코 월드컵 (김정남)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이희택)	3패 (조별리그 탈락)	
 1994 미국 월드컵 (김호)	2무1패 (조별리그 탈락)	
 1998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2002 한·일 월드컵 (거스 허딩크)	4승1무2패 (4위)	
 2006 독일 월드컵 (뮌 아드보카트)	1승1무1패 (조별리그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허정무)	1승1무2패 (16강 진출)	
 2014 브라질 월드컵 (홍명보)	1무2패 (조별리그 탈락)	
 2018 러시아 월드컵 (신대환)	1승2패 (조별리그 탈락)	
 2022 카타르 월드컵 (파울루 벤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역대 중 11회)	

자료/대한축구협회
반종빈기자 2022.02.22

[그래픽] 한국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 및 성적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bjbi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hosu1@yna.co.kr

🔗 관련기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태극전사 땀방울로 이룬 카타르행
'김진수-권창훈 골' 벤투호,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종합)
'골 넣는 수비수' 김진수, 3년 만에 두바에서 벤투호 승리 견인
'캡틴' 손흥민의 세 번째 월드컵...브라질-러시아의 눈물 지울까
종가 잉글랜드-아르헨티나 프랑스도 못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3년 5개월' 최장수 벤투의 독심, 태극전사 맞춤형 압하다
늘 험난한 '월드컵 본선 가는 길'...카타르도 쉽지않은 여정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02 00:56 송고

[#월드컵](#) [#본선](#) [#카타르](#)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 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비주얼뉴스	영상포토화보#D그래픽	뉴스상품	프리미엄뉴스뉴스리더인타넷맞춤형보도자료해외배포보도자료국내배포
데미별뉴스	핫뉴스토플뉴스주요뉴스긴급뉴스단독뉴스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연합연감영문연감한국인물사전단행본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팩트체크재난포털날씨주요신문토플뉴스사설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AREX 공항철도모바일PC/홈페이지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이미지그래픽동영상인물
외국어	English中文日本語عربيEspañol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인포맥스한민족센터K갈쳐기확단(K-ODYSSEY)채움IR클럽#홍